

책을 읽지 않는 시대의 '읽기 장벽' 탐구

읽지 못하는 사람들 매슈 루버리 지음 장혜인 옮김



은퇴한 70대 교수가 소설을 펼쳤다가 갑자기 글을 전혀 읽을 수 없음을 깨닫는다. 글자가 뒤죽박죽돼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뇌졸중으로 인해 글자를 보긴 해도 해독할 수 없었던 것이다. '후천적 문맹'이라고 하는 실독증(失讀症·시각 능력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여 있는 글자를 읽지 못하는 증상)이었다. 독서광이었던 그는 '읽기 장벽' (Reader's block)에 낙심했지만 재활치료를 통해 상실했던 읽기 능력을 차츰 회복할 수 있었다.

자신을 '활자를 다루는 읽기역사학자'라 지칭하는 영국 퀸메리런던대 현대문학 교수인 매슈 루버리는 신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신경다양적 읽기의 역사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표현한다. 용어 선택 또한 신중하다. '신경다양성'은 '신경학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을 장애가 아닌 다양성으로 보는 관점'을 의미하며 1990년대에 등장한 개념이다. 또한 결함이나 문제를 강조하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읽기 장애' 대신 '읽기 차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저자는 난독증과 과독증, 실독증, 공감각, 환각, 치매 등 신경학적 질환 때문에 읽기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해진 6가지 '읽기장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읽기'는 독자들의 상식과 다르다. 저자는 "읽기는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기술이며 굴절적용(생물학적 특질이 본래의 기능과 관계없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과 신경가소성(뇌의 신경회로가 외부 자극 또는 학습을 통해 스스로 회복하거나 구조적·기능적으로 재조직

되는 능력)이 주는 선물이다"라며 "인간의 뇌는 말하기와 마찬가지로 읽기를 위해 설계되거나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읽기를 위한 보편적인 설계도는 없다"고 밝힌다.

뇌 손상자들은 읽지 못하는 '문해력 상실'으로 바뀌고,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우는 과독증 독자는 '표면 읽기'에 그친다. 저자는 머리손상과 질병, 뇌졸중,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읽기 능력을 잃은 사례를 들려 읽기의 본질에 접근한다. 저자는 '읽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문해력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읽는다는 것'의 의미뿐 아니라 '읽을 수 있다는 것'의 의미도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감춰졌던 읽기의 세계를 찾아서'라는 제목을 붙인 '들어가며'에서 6개 장(場)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1장(문해력 신화 속 지위전 아이들)부터 6장(읽기는 어떻게 삶이 되는가)에 이르기까지 신경학적 질환과 '읽기장벽', '읽는 존재'로서의 인간 등에 대해 폭넓게 살핀다. 독자들은 저자와 함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읽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 깊이있게 생각하게 된다.

뇌신경학자 올리버 색스는 "나는 읽어야 한다. 내 삶의 대부분은 읽기다"라고 했지만 요즘 대중들은 책을 멀리하고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활자대신 스포츠 영상이 익숙한 독자들은 신간에서 다양한 '읽기 장벽'의 사례를 읽어다가 자칫 활자 속 미로에 들어선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간파한 저자는 독자들에게 "편한 대로 이 책을 읽어 보라"고 권유한다.

"...읽기에 정답이 없듯 이 책을 읽는 방법에도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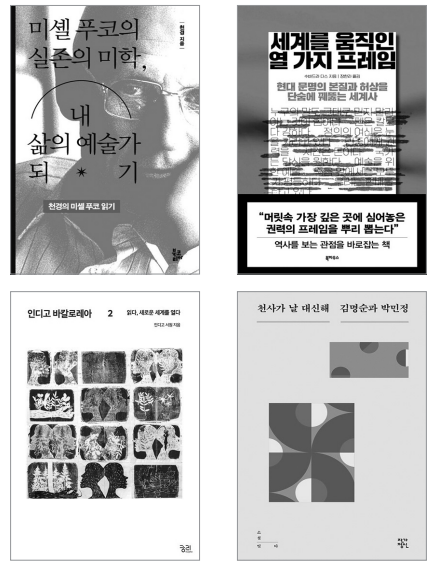
개관 7주년을 맞은 서울 코엑스몰 '비블리마켓서점' /연합뉴스

은 없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책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곧 내가 '읽기'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퀘스트·2만2000원> /송기동 기자 song@

새로 나온 책

▲미셸 푸코의 실존의 미학, 내 삶의 예술가가 되기=국내에는 '감시와 처벌', '말과 사물' 등 저서로 잘 알려진 미셸 푸코의 실존 철학을 다뤘다. 그는 모든 인간이자 주체가 자신의 삶에서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방법으로 후기 사유인 실존의 미학을 언급하며 '내 안의 나'를 깨우기 위해 망치를 들고 내리쳐야 한다고 언급한다. 한 존재가 '개안'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감내해야 하고, 자기뉘달 끝까지 '자기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북코리아·1만9000원>



▲세계를 움직인 열 가지 프레임='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은 돈이다' 등 다양한 말들은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할 진리처럼 통용되곤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개념들이 누구에 의해 확립됐으며, 누가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는 이가 드물다. 문명화라는 명분으로 서구 세계는 과학과 기술을 독차지하고 있다. 잉카제국의 문자 '키푸'가 역사에서 삭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현대 문명의 본질과 허상을 프레임 단위로 꿰뚫는다. <북하우스·2만원>

▲인디고 바칼로레이아2=인디고 바칼로레이아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교육기관 IBO가 개발, 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대구 및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입시교육 위주의 쏠림에 물꼬를 트는 유의미한 시도다. 공부란

세상에 향한 질문을 내던지는 일이며, 모두에게 이로운 '혁명'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문화예술, 읽기 쓰기, 생태 및 환경 분야 교육을 하고 있다. 바칼로레이아는 의대 진학 편중의 허상을 비판한다. <구리·1만5000원>

▲천사가 날 대신해=김명순과 박민정이 식민지 조선 사회를 배경으로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혐오'를 현대적 시각에서 복잡다기하게 풀어냈다. 주인공 '나'는 동창생 세운이 죽는 것을 보고 혼란에 빠진다. 전남편과의 불행한 결혼생활 끝에 '새 삶'으로 나아가던 세운이 왜 사라졌는지 의문을 품는다. <작가정신·1만7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출동, 방귀 소년=하루아침에 친구들 사이에서 '히어로'가 된 기원의 영웅 발랄 성장기. 기원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물레 방귀를 똥냈는데 반 친구들이 모두 기절했다. 그러면서 가문의 신비한 이야기를 알게 되는데, 고조할아버지가 금도끼나 은도끼 대신 산신령계 '방귀 능력'을 선물받았다는 것이다. 그날부터 흑독한 방귀조절 훈련이 시작된다. <이지북·1만5000원>

'리안'은 특효약 '바르폴'을 구하려 고군분투한다. 어느 날 낯선 신사가 리안을 찾아와 미심쩍은 심부름을 제안하고, 그 뒤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수파 마을로 향한다. <보랏빛소어린이·1만4500원>

▲멍치, 그건 괴롭힘이야=괴롭힘의 종류부터 가해자, 피해자를 도와주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준다. 학교 등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사이버 불링 등 진화하고 있는 괴롭힘 수법을 분석하고, 내 마음을 다칠 수 있게 하는 모든 일이 '괴롭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규명한다. <다림·1만4000원>

▲색깔을 훔치는 아이=부자가 되려 한 소년은 색깔을 훔친다. 흑백으로 둘러싸인 마을 사람들은 단 한번도 '색깔'이란 것을 본 적이 없다. 뷰로 마을의 가난한 소년

기록은 죄와 구원의 의미, 신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 대한 차이, 예술과 기독교에 대한 견해, '신을 위한 예술이 아닌, 신을 향한 예술'을 지향하는 삶, 타 종교인을 만났을 때의 믿음의 충돌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한 그는 현재 '누구에게나 성인(聖人)의 순간이 있다'라는 주제로 이상적 순간을 포착한 '핑크맨'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

한편 이번 책 발간을 기념해 북토크와 자화상 그리기 행사도 열린다. 오는 28일 오후 2시 그랑빌 더 포레(광주 서구 개금길 77-14)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에서는 도서 평론가 김성신이 함께 자리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화상 그리기'(오전 10시30분~11시30분, 오후 3시30분~4시30분) 행사도 진행된다. 자이를 찾아가는 구도의 방법으로 이 작가가 오랫동안 지속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림 한 점에 묵상 한 편...88개의 십자가

십자가 묵상 이성수 지음



책에 실린 88점의 십자가 작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하다. "회화가 좋은 것은 이 무거운 막대기를 공중에 띄울 수도, 바람에 날릴 수도, 그것의 움직임에 그려 넣을 수도 있다"라는 이성수 작가의 말처럼, 십자가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시공을 구분할 수 없는 공간에 우뚝 서 있고 화려한 색채의 향연 속에, 때론 깊은 심연 속에 잠겨 있기도 한다. 각각의 십자가 작품과 함께 실린 글에는 작가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종교와 예술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이성수 그림 산문집 '십자가 묵상-신의 사랑과 구원, 그 역설에 대하여'가 출간됐다. '십자가', '죄', '선택'

'구원', '믿음', '사랑', '예술' 등 모두 12장으로 구성된 책에는 그가 1년간 작업한 십자가 연작 100점 중 '눈은 따뜻하다', '바늘 끝에서' 등 88점과 함께 묵직한 사색의 기록이 함께 실렸다. 십자가 그림과 글로 써내려간, 한 작가의 '구도의 여정'을 오롯이 만날 수 있는 책인 셈이다.

그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다. 희생과 처벌, 폭력과 용서, 피와 땀, 절망과 구원, 빛과 어둠, 농담과 진실 등 서로 대립된 단어로 표현되지만 결국 '양쪽이 서로 시소를 타듯 오늘의 상황에 균형을 맞춰 움직이며 새롭게 진실을 정립'하고 있기에 "내가 아는 어떤 다른 상징보다 단순하고 강렬하며 모순되며 진실된" 십자가를 화폭에 풀어놓기로 결심한다.

십자가를 기존의 익숙한 방식이 아닌, 화가 고유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그는 십자가를 부러뜨리기도 하면서 실험을 지속한다. 단순하고 미니멀한 십자가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한 그림에 한 편씩 실은 묵상의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